시선

사설

대학주보, 관보(官報)아니다

- 학사지원과의 취재 저지 유감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의 기능이며, 언론은 항상 중립적 위치에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공동체 환경을 살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언론이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언론은 '편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 기능적 매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지난 6일에 진행됐던 '성적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개편특위)' 제2차 회의에서 학사지원과가 보여준 태도는 건전한 공동체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학사지원과는 취재 목적으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학주보 기자에게 '사진촬영까지는 괜찮지만 교수나 윗분들 중에 (대학주보의 취재를)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정리해서 드리겠다는데 왜 굳이 참관하려고 하는가' 등의 발언을 하며 회의장 진입을 저지했다. 이는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제1차 회의 당시 '사전에 취재협조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주보 기자의 회의장 진입을 제지한 데에 이어 두 번째로 벌어진 사건이다. 심지어 '드리겠다'고 공언한 회의록은 회의 종료 일주일이 흐른 지난 주말까지도 '아직 작성이 덜 됐다'는 이유로 제공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개편특위'는 지난 해 소위 '평균 B0' 논란을 일으켰던 '성적평가제도 개선안' 문제에 맞닿아 있다. 당시 학교 측은 공동체 구성원이자 안건의 주요 당사자인 학생을 배제시킨 채 학장회의를 통해 성적평가제도 개선안을 추진했다가 학생 구성원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올해 들어 해당 논의를 총학생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이 개편특위의 본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대표인 총학을 논의에 동참시키는 것만으로 구성원에 대한 모든 책무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언론은 등록금책정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등 공동체의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회의에 동석하여 취재활동을 펼친다. 그러는 이유는 첫째로 구성원의 삶과 밀접한 결정이 이뤄지는 해당 논의를 구성원에게 중간보고하고, 둘째로 해당 이슈를 공론화시키고, 셋째로 해당 논의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만일 대학언론이 이런 회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언론은 '구성원이 자주적으로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모든 회의 현장에 참석할 여력이 없는 일반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안타깝게도 학교 측은, 아니 적어도 학사지원과 측은, 대학언론을 '깔끔하게 정리된 사항만을 내보내는 관보(官報)' 또는 '모든 취재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야 하는 본관 산하의 행정부서' 정도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학교 측이 '언론의 본분'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학언론의 직무' 개념에 대해 적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신문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특위에 대한 취재 저지는 개편특위에 '논의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면 곤란한' 학교 측의 모종의 입장이 깃들어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대학주보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 압력을 거부하며, 항상 사실을 넘어서는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경희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 분투해갈 것이라는 점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임하리

이 주의 주제 -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는 대학원생

대학원생의 목적 전도된 '조교장학'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최저임금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 역시 7% 인상이니 1만 원이니 숫자 구호부터, '생활임금제'라는 단어까지 쏟아내고 있다. 이 논의에서 임금인상에 따라 소비가 늘고, 시장이 살아나는 선순환으로 가느냐 도리어 고용이 줄고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가느냐를 두고 밀고 당기기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논의는 경제계나 노동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노동'이라는 요소를 감안할 때, 대학원생의 조교 근로 역시 이런 최저임금제 논의에서 고민해 볼 부분이다. 특히 반값등록금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다수'인 학부생에 대한 국가지원은 예전보다 늘었지만, 대학원생은 한 발 비껴서 있었다. 심지어 학부등록금 동결을 대학원 등록금 인상으로 메꾼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대학원등록금의 경우 지난해 대비 2% 인상된 바 있다.

당장 외부 프로젝트나, 연구비지원금이 큰 이·공계열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레 연구비를 지원받고, 등록금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런 기회가 없는 대학원생은 결국 '조교장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교는 '보조' 역할을 넘어 '주 행정업무'를 미루는 대상이기도 하고, 잔심부름부터 사적 심부름까지 적지 않은 문제를 겪는 자리다. 버티며 일주일에 32시간 1학기를 근무하면 등록금의 전액도 아닌 500만 원의 '임금'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시급으로 계산 6,010원이다. 올해 최저시급 5,880원보다 230원 더 받는다. 조교업무보다 중요한 것이 연구 활동이고, 학업인 상황에서 고된 노동의 대가는 박하기만 한 것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나는 대학원생들도 사정은 다르지만, 조교근로에 대한 의견은 대개 비슷하다. 업무강도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시급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바램과는 반대로 현재 우리학교는 시급을 낮추는 방향을 선택한 셈이다. 이에 발맞춰 업무강도가 줄어야 선순환이다. 그러나 대학원은 업무강도를 줄여달라는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고, 실제 업무량은 일선부서에서 결정한다. 시급은 낮췄지만, 업무강도는 그대로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업무 강도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조교업무'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행정부서에 요구해야 한다.

보다 큰 틀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 검토도 절실하다. 학부생만큼이나 대학원생 역시 학자금대출 등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연구 등으로 인한 이중고도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연구역량이 약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경희와 호흡한 '깊은' 삶을 들려달라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지대넓얕', 웬 줄임말인가 했다.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말로 팟 캐스트 방송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동명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화재가 됐다. 방송을 들어보지도,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대넓얕, 입에 감기는 이 말을 곱씹어봤다.

기자활동도 지대넓얕에 부합하는 일이다. 이래저래 사람을 만나다보면, 혹은 통계자료를 들춰보다보면 사실 몰라도 됐을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알게 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행정구역을 그려놓은 지도를 보면 헐떡고개만 넘어도 이문동이라든지 하는 것들 말이다.

우리신문이 이번주 국제캠퍼스 '마을'을 시작으로 살피려고 하는 〈당신이 지나친 '가장 가까운 이야기'〉도 그런 '넓고 얕음'에서 시작됐다. 밥 먹으려고 정문 밖을 나서면, "저 위치에는 원래 무슨 가게가 있었다"는 말들을 여러번 들었다.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사라진 가게를 이야기하는 선배들과 구두를 닦아주며 덕담을 건네준 그분 덕에 마음이 따뜻했다는 직원들, 오랫동안 노점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가게를 냈다는 아저씨까지.

오랫동안 경희라는 공동체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흠뻑 빠져들게 했다. 오래전 할머니가 들려주던 전래동화처럼, 우여곡절 속에서 이들의 삶과 잠깐 호흡하는 시간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잠깐의 호흡으로, 또 개인의 넓고 얕은 이야깃거리로 삼기에는 세상은 빠르게 바뀌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개인의 생각은 아니었던 듯하다.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가 20년도 넘게 장사를 했다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 둥, 치킨을 40년 튀겼다는 아저씨가 있다는 둥 기자들은 하나같이 좁고 깊은 '삶'을 청취하고 다녔다. 편집회의 끝에 기자들은 기록이라는,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에 전념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아마 지면을 모두 할애해도 부족할 이야기들을 국제캠퍼스 출신이라면 하나씩 품었을 그 곳. 버스가 정문 앞에 멈추고,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마을에서의 영업도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아직까진 괜찮지만, 점점 줄어가긴 해". 취재하면서 가장 자주 들은 '넋두리'라고 한다. 사업이 잘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라기에는, 그 곳들은 청춘의 빛나고 또 어두운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곳 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일주일 동안 몇차례 같은 곳을 찾아 셔터를 눌렀다.

앞으로도 이 이야기들을 담아나가는데, 이제 갓 후배들을 받은 기자들로는 힘에 부친다. 추억한다는 것, 먼저 경험해봤다는 것이 세월이 갖는 가장 큰 힘이기에 앞으로 기자들은 많은 학교와 관련된 옛 이야기 제보를 기다리고자 한다. 뜻 깊은 시작에 많은 구성원이 도와주리라 믿는다.

마침 올 해는 대학주보 60주년이다. 앞으로의 60년을 또 기록해나갈 진리를 위한 넓고 깊은 추억을 고대한다. 오늘은 늘 어제가 되니까.

의약학 계열 국가고시 100% 합격

미디어 여론동향 2015. 3. 2~3. 1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가정폭력'(경희숲_7367, 2015.3.2)에 관한 내용의 글이 인기가 높았다. 글쓴이는 7살 때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무섭다며 글을 시작했다. "과도를 들고 행패를 부리거나 매사에 시비조로 대답을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다" 며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해 행복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100% 글쓴이의 마음을 이해할 순 없지만, 그저 힘을 내라는 뻔한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우리학교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3.9) 제67회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2014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71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고, 한의과대학 졸업생 121명(기 졸업자 8명 포함)도 제70회 한의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했다. 약학대학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된 후 처음 시행된 제66회 약사 국가고시에는 약학대학 졸업생 50명, 제55회 간호사 국가고시에는 간호과학대학 졸업생 91명이 시험을 치러 전원 합격했다. 제79회 의사 국가고시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114명이 응시해 109명이 합격, 전국 평균 합격률 94.6%보다 높은 95.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우리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 등 의약학 관련 전 분야에서 단과대학을 두고 있는 국내 유일의 대학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9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임영진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경희대 신임 의무부총장에 임영진 경희의료원장 임명/세계일보, 2015.3.11) 우리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임 신임 의무부총장은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감마나이프 수술 분야의 대가로 꼽힌다. 또한 그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제22대 경희대병원장에 취임, 2012년에는 제15대 경희의료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결과 상승, 상급종합병원 지정, 해외환자 대거 유치 등 경희의료원의 변화와 혁신을 남다른 리더십으로 이끌며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 교수가 최근 국가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됐다.(강동경희대병원 김태 교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선정/쿠키뉴스, 2015.3.12) 김 교수는 하버드의대 정신과 로버트 맥컬리 교수 연구팀과 함께 기저전뇌(basal forebrain) 영역의 특정 신경세포가 대뇌피질(cerebral cortex)과 직접 연결돼 인지기능 조절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원거리에서 대뇌피질의 인지기능을 조절하는 특정 유형의 신경세포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의 연구논문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3월 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 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